

## 내외 소식

### 부산에서 교회 전시회

교회의 교리와 신앙의 필요성에 대한 전시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시립전시관에서 있었다. 천연색으로 된 그림 100여점이 출품되고 하루에 세차례씩 “행복의주구”란 영화를 상영하였던 이번 전시회는 약 1500명이 관람하였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지역에서 시도된 동 전시회가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결론을 얻은 선교부는 봄철부터 본격적인 각도시 순회전시회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부산의 전시회 모습.



광주지부

광주지부의 지부대회가 지난 1월 18일과 19일 광주시 총장로의 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참조) 부산에서 갖는 보통의 지방대회에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많은 사람이 참석치 못했었던 것을 감안했던 이번의 지부대회는 그래서 “특별지부대회”란 명칭으로 선교부장단과 남부지방부장단을 모신 가운데 이루어졌다.

18일 오후 역원회로부터 시작된 대회는 19일 9시부터 신권회, 10시반부터 총회를 가졌는데 박 병규 광주 지부장은 참석한 광주의 70여 성도들에게는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는 모임이었다고 대회를 통해 전해 받은 축복을 감사하였다.

### 선교부 선교사 이동

한국 선교부에서는 2월초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선교부 선교사의 후임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행정담당(제1보조)—롭슨 장로, 선교사담당(제2보조)—에반스 장로, 잡지담당—달튼 장로, 공보담당—휘크너 장로, 기록담당—라 장로.

한편 도서판매는 한국 번역 출판부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후임은 결정되지 않았다.

### 선교사 보조 자료 시사회

선교사들이 구도자들과 복음을 배우는데 보조자료로 쓰이는 영화의 시사회가 지난 1월 12일 선교부에서 있었다. 중앙지방부 각 지부의 선임 선교사와 중앙지방부장단, 평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던 동 시사회에서 상영된 필름은 미국 본부로부터 할당받은 것으로서 우리 말로 된 것인데 천연색인 30분짜리 영화의 제목은 “진리의 추구”와 “너를 돌이킨 후에”였다.

### 최 장순 자매 결혼

한국 번역 출판부의 번역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최 장순 자매가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서부지부에서 서현보 선교부장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인 신랑 허 성영 형제는 데이트 3개월 만에 청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최근 자매의 인도로 복음공부를 시작했다. 녹번동에 신방을 차렸다.





### 삼청지부

삼청지부의 지부대회가 지난 2월 1일과 2일 삼청동 소재 삼청지부에서 있었다. 토요일인 1일 상향회대회에서는 박진 구성의 1910년대의 신파연극인 성구의 “육혈포 강도”를 서희철 형제의 연출로 갖는 등 다채로운 순서로 일년 동안 키운 재능을 발표했다. 2일에는 지영달 형제의 후임으로 최육환 형제를 지부장으로 지지하였다. 그는 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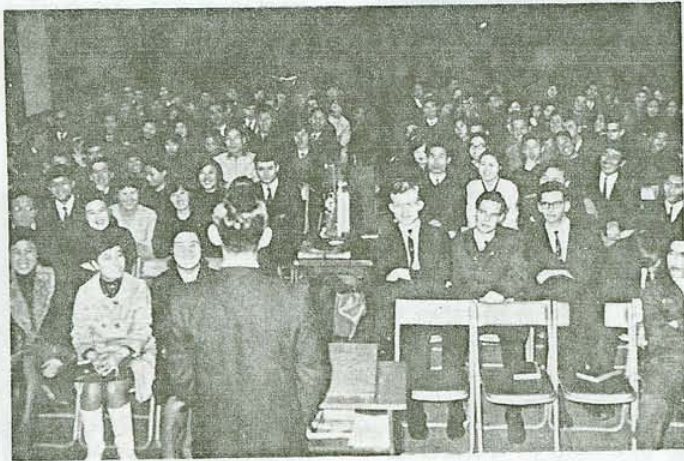
보좌에 김동길 형제를 임명하였다.

새로운 지부장을 맡은 삼청지부는 2월 4일 서부지부의 합창단과 함께 수도육군병원을 방문하고 그곳의 400여 환자와 기간장병을 연극과 노래, 게임 등으로 위문하고 위문대 150개를 전달했다. 사진 : 윗열 좌측과 우측은 지부대회의 순서였던 연극의 한장면. 윗열 가운데와 아랫열 좌, 우는 수도 육군병원에서의 위문 장면. 아랫열 중앙 최 지부장.



전주 지부장에  
박주인 형제

전주지부의 지부장으로 박주인 형제가 지지되었다. 지난 2월 9일 지부로 승격됨과 아울러 임명된 박주인 형제는 그의 제1보좌로 허준 형제, 지부 서기에 홍성대 형제를 임명하였다. 사진 : 전주지부장 박주인 형제.



### 중앙지방부 특별 노변의 모임

중앙지방부 주최의 노변의 모임이 지난 1월 26일 6시 30분부터 등부지부에서 있었다. 연사로는 내의문제 연구소의 오기완 씨와 동아일보 기자 서원석 씨가 초청되었는데 서씨는 “우주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오씨는 “간첩활동의 이모저모”란 연제로 40분씩 강연을 했었다. 성도들은 이날의 모임을 통해서 축복받은 곳인 지구와 자유세계를 감사했었다. 사진 : 오씨의 강연을 듣는 200명의 성도들.



콜형제 한국 방문

1965년에 귀환한 미국인 귀환 선교사 로스 에이취. 콜 형제가 하와이 대학교의 대학원 장학금으로 “한국의 국민학교 과정에서 강조되는 도덕적 가치”란 제목의 졸업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난 1월 24일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6월 말에 이한 예정이다.



“회원 배가 운동의 해”를 결산하고 “물몬을 알리는 해”로의 뜻을 올리는 중앙지방부 지방대회가 지난 2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선교본부에서 있었다.

토요일인 15일 오후 주일학교와 상향회의 전체역원회를 기점으로하여 6시부터는 기도를 주제로 한 신권회와 자매애를 주제로 한 상호 부조회 대회가 있었으며 7시부터 시작된 장로 정원회에서는 신권회에서 장로로 지지된 7명의 형제에 대한 안수가 있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10시부터 제1총회, 오후 2시부터 제2총회가 있었다. 울들어 첫 번째로 갖는 지방대회이기 때문에 대관장단에서부터 지방부 보조조직에 이르는 역원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많은 지방부 역원의 이동 및 보장은 점차 굳게 다져지는 지방부 조직의 일면을 보여 주었다.

차 중환 지방부장은 지방부행사에서 작년의 첫 번 지방대회에서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영등포와 성북지부의 향상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영등포지부는 조직이 안된 상향회를 제외한 모든 집회에서 회원 배가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참석한 연 1,500여 성도들은 지도자의 말씀과 봉사를 마치고 떠나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간증에서, 새 해를 다짐하고 자기의 신앙을 이웃에게 알리겠다는 간증을 다짐하는 모임이기도 했다. 이번 지방대회는 선교부

장단 제2보좌 부르거 형제와 선교사들의 임기완료를 아쉬워하는 회원의 나뉠 속에 끝났다.

새로 임명된 지방부 역원은 다음과 같다. (준칭생략) 지방부장 제2보좌 김 종균, 대신권담당 평의원 이 민관, 아론신권 이 태문, 주일학교 서원, 상향회 한인상, 가정복음 구 중식, 지방부 선교사 및 우정 이 정현, 복지 및 고용 천 낙서, 상호부조회 이 재수, 군인 주 덕영.

사진 좌상: 작년의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를 “물몬을 알리는 해”로 정할 것을 제창하는 지방부장. 우상: 지방부 부조회 주최의 즐거웠던 점심시간. 우중간: 곧 이임하는 부르거형제와 선교부와 중앙지방부 산하의 선교사들. 좌하: 장로 정원회의 모습. 하중간: 말씀하는 선교부장. 우하: 지방대회를 끝내고 환담하는 회원들.

#### 동대문지부 난방장치 착수

한국에서 회원들의 봉사로서 처음 이루어진 동대문지부의 난방장치가 지난 2월 8일 착수되어 3월 중순의 준공을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기계의 도착이 늦어져서 이제야 시작된 동 공사가 끝나게 되면, 동대문지부는 어느 구석에서도 기름 난로는 볼 수 없게 된다.